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4.64%(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5/3℃ 목포 -3/2℃ 여수 -2/6℃

단기 4344년 (음력 1월 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00호 1판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르포 AI 가축 매몰지 전수조사 동행 취재해 보니

침출수 대책 엉망…날풀리면 큰일

배수관 시설 허술 지하수 오염 우려

10일 방역복을 입은 전남도 축산정책과 직원들이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한 오리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제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를 매몰하는 데 전념했지만 차츰 기온이 오르고 비가 오면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눈발까지 흩날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2시30분께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한 가축 매몰지. 붉은색 흙이 볼록하게 뒤덮인 매몰지 앞으로 배윤환 사무관 등 전남도 축산정책과 직원 3명이 다가갔다.

흰색 방역복과 방역화를 2중으로 단단히 챙겨입은 배 사무관 등 점검팀은 매몰지에 도착하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전남도내 AI 가축 매몰지 관리 실태에 대한 첫 전수(全數)조사에 나선 이들은 노란색 '접근금지' 띠가 둘러진 매몰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폈다.

약 20㎡ 규모의 매몰지 한 켠에는 가축의 수와 시기, 발굴 금지기간 등이 적힌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ㄱ'자 형태의 가스배출관도 2개나 꽂혀 있어 외관상 별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지표면 보다 1.5m 정도 높게 다진 성토 상태 역시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문제점이 발견됐다. 매몰지에서 가축이 썩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것. 이 매몰지 주변에는 침출수를 빼낼 수 있는 유공관이 전혀 없었다. 침출수를 모아 두거나 배출할 수 있는 웅덩이 또한 파여있지 않았다.

이 곳에 묻힌 오리는 4만2900여 마리. 만약 묻혀있는 오리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여과 없이 지면으로 스며들 경우 주변 지하수가 오염돼 이를 마시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전남도 직원들은 매몰지 실태 점점표에 '부적정'이라고 기록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오리 1만여 마리가 묻혀있는 인근의 또 다른 매몰지. 얼마 전까지 오리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바로 옆 농장은 텅 빈 채 인적조차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주변에는 석회가루를 담는 포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한눈에 봐도 매몰 작업이 급하게 이뤄졌음을 짐작케했다.

매몰지의 상황은 앞서 점검한 곳보다 더욱 열악했다. 성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 매몰지와 주변의 높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침출수에 대비한 유공관은 물론이고 배수로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점검을 마친 전남도 직원은 "해빙기가 가까워질수록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시·군에 후속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도 축산정책과 직원들은 4개팀으로 나뉘어 매몰된 가축이 많은 나주지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와 환경오염방지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나주와 영암 등 도내 매몰지 115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매몰지 관리 및 환경오염방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나주=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조용호 광주지법원장 심상철

조용호 고법원장 심상철 지법원장

대법원은 10일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56)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광주지법원장에 심상철(53)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관련기사 2면·명단 14면〉

이번 인사는 정갑주(54)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을 용퇴와 이상훈(54)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등에 따라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교체됐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사법시험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심상철 광주지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사시 21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광주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에서는 안영률(53) 광주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극성(55)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장병우(56)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박병칠(53)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영암 F3대회 올해도 취소

국제 F3조직위 통보…전남도 공신력 손상

전남도가 F1(포뮬러원)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의 수익 창출 방안으로 마련했던 F3(F3 International Trophy) 국제자동차대회가 또다시 취소됐다.

특히 전남도가 F1 대회 이외에 F3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영암 서킷에 유치, 상시 수익을 창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만큼 경주장 사후 활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F3 한국대회 관장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는 10일 국제 F3조직위원회 역할을 하는 영국 MRC(Motor Race Consultants)가 오는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던 F3 한국대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KARA측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대회 취소의 결정적 사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ARA측은 "MRC측은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한국 대회가 사전 공지도 없이 전남도 반대로 무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올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최근의 F1대회 운영법인 카보(KAVO)의 정영조 대표 해임 등 경영진 교체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MRC의 베리 브랜드 대표가 '정영조 카보 전 대표 등 경험있는 전문 스텝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새로운 F3 대회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도 "현재까지 올해 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3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올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수익사업과 마케팅 프로모션도 힘겨운 상황에서 대회 개최·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하면서 수익 창출 가능성도 불투명한 F3대회를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F3 대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내외 모터스포츠팬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정됐던 대회를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나 취소해 공신력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됐다.

아울러 F1 대회에 F3 대회를 잇따라 개최,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국제자동차대회 메카로 삼겠다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MRC는 또 지난해 11월 영암경주장에서 열기로 했던 한국 대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따라 입은 금전적 손실과 명예 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해 KAVO가 F3 대회를 개최하려는 데 대해 전남도가 반대한 적이 없으며, KAVO의 대회준비 부족에 따라 개최가 불가능해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경주장 감정평가 중단…소유권 이전 차질

농어촌公-KAVO 입장차 커

한국농어촌공사와 KAVO간 영암 F1(포뮬러원) 경주장의 양도·양수를 위해 추진해왔던 부지 감정평가가 중단됐다. 감정평가가 지연되면서 소유권 이전도 늦춰질 수 밖에 없어 국내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경주장 활용을 통한 수익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와 경주장 부지 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간 맺은 양도·양수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진행중인 영암구 삼호읍 F1대회 경주장 부지(185만3000㎡·5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가 최근 중단됐다.

카보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추천, 감정평가를 거친 뒤 두 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말 농어촌공사에 '감정평가의뢰 협약 해지 및 반려 통보'를 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인 KAVO와 농어촌공사간 입장차가 커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AVO측은 경주장 건립 전 부지 상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면, 농어촌공사측은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현재 부지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컨대 KAVO 주장대로 기반시설 조성 전이라면 땅값이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이 갖춰진 점을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경우 땅값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농어촌공사측은 조만간 한국감정원을 통한 재감정 의뢰 및 새로운 감정평가기관 선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정 평가가 늦어지면서 양도·양수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KAVO가 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할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보증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을 우려해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경주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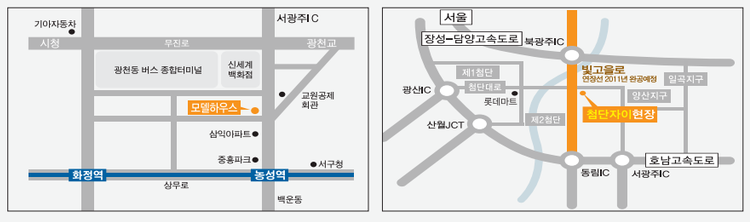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자이
3월 OPEN 예정
1140
1,140세대 프레스티지를 완성하다
첨단자이 2차!
R&D 특구지정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광주 르네상스 시대-
그 중심에 첨단자이 1차에 이은 546세대의 첨단자이 2차로
마침내 1,140세대의 대단지를 완성합니다

광주 첨단지구의 프레스티지를 완성하는 첨단자이 2차
■주거문화의 프레스티지 1,140세대 대단지의 완성 ■브랜드의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
■교통중심의 프레스티지 빛고을로 연장 개통 ■미래가치의 프레스티지 광주 R&D특구 지정



첨단자이 2차
84(A)㎡/84(B)㎡ | 총 546세대
분양문의 062) 368-2020
시행사 하나다올신탁 위탁사 건축과 디자인 시공사 GS건설 자이 홈페이지 (www.xi.co.kr)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0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 : 건축과 43940호 ▶시행(공동시행) : (주)하나다올신탁 ▶위탁사 : 건축과 디자인 ▶시공 : GS건설(주) ▶분양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연면적 : 84,764㎡ ▶지번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542-10 번지 외 16필지 ▶대지소유권 : 100%확보 ▶분양대금관리 : GS건설